

헤밍웨이의 대조기법 연구

- 「무기여 잘 있거라」를 중심으로-

설 준 부*

I

헤밍웨이는 1899년 7월 21일 일리노이주의 오크파크 (Oak Park)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쳤다. 의사인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아 활달하고 자유분방한 기질을 타고났다. 그에 반해 어머니는 교육적이고 종교적인 전통을 고집하는 상반된 성품을 지니고 있으면서 꾸준히 헤밍웨이의 의식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격랑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반된 성격 차이를 다룬 몇 편의 단편이 있다. 헤밍웨이는 가정 생활의 주도권이 어머니에게 쥐어져 있다는 면을 다루고 있다. “Fathers and Sons”에는 다음과 같은 일절이 있다.

“니크는 오랫동안 부친을 무척 사랑하고 있었다. 모든 사정이 분명해진 이제 사태가 악화되기 이전의 훨씬 먼 옛날의 일을 생각하는 일조차 좋은 최고라 할 수 없다. 모든 그 이야기를 쓰고 있었다면 그러한 불쾌감을 모면하고 있을는지 모른다. 이제까지도 그는 여러 번 쓰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을 체내에서 추방해 왔다.”

헤밍웨이는 닉 아담스(Nick Adams)가 자신의 분신(Alter Ego)임을 그의 최초의 단편집 우리들 시대(In Our Time)에 닉을 자주 등장시키므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임을 밝혀 주고 이 실제 사실을 독자들에게 소설이라는 허구의 틀로 짜 맞추어 넣고 있는 것이다. 헤밍웨이는 “Father and Sons”을 쓰고 난 후에도 “The Doctor and the Doctor’s Wife”, “Now I Lay Me”에서도 가정의 주도권이 어머니에게 주어지고 부부의 대립의 결말은 남편의 인내와 굴종으로 매듭지어지고 있는 것이다. 닉 아담스의 이야기는 최초의 단편집에서 절반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

제 2, 제 3의 단편집에서 「Men without Women」(1927)과 「Winner Take Nothing」(1933) 등의 단편집에도 자주 등장한다.

즉 "Ten Indians," "The Killers," "The Light of the World," "A Way You'll Never Be" 등 허먼의 실연의 불안을 감치한 민감한 혼을 우리들은 발견한다. 헤밍웨이는 과거 자기 사생활사의 사건과 그것에 영긴 자기 감정을 적절히 표현해 주었고 더 나아가 부부관계 비극의 부친의 자살 동기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의 주인공 로버트(Robert)는 부친의 자살을 회상한 뒤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만일 아버지가 겁쟁이 아니었다면 그 여자와 끝끝내 대항하여 그렇게 চে메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일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다. 어쩌면 그 여자의 학대가 아버지가 갖지 못한 것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했었을 지도 모른다.” (# 30)

이러한 부부간의 갈등에서 헤밍웨이가 취한 행동 양식은 두번의 가출 사건과 연계시켜 생각할 수 있다. 전기작가 찰스 펜튼(Charles Fenton)¹⁾ 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 레스터 헤밍웨이(Leicester Hemingway)도 불행한 소년시절을 들려주고 있다.

“형의 10 대를 통하여 곧잘 집에서 멀리 떨어진 노천에서 잠을 잤다.”²⁾

“형(Earnest Hemingway)은 춤도 출 수가 없었고, 좋아하지도 않았다. 그는 가까이 있던 친구에게 이야기한 후 결국(eventually) 잠시 집에서 사라졌다.” (Ibid : P.131)

또한 헤밍웨이는 그가 자란 Oak Park의 주변환경이 결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가치만을 고집 하는 이 마을”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다(Fenton, P.4). 술집하나 없었고 학교와 교회만이 유일한 집회 장소 였던 이 마을보다는 맑은 공기가 충만하고 사냥과 낚시를 즐길 수 있었던 미시간호 주변에 위치한 월룬 레이크(Walloon Lake)에 대한 향수가 질게 드리워져 작품 속에 반영된다. 우리들 시대(In Our Time) 단편집에 실린 열 다섯 편의 단편집 중 무려 일곱 편이 월룬 레이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헤밍웨이의 진정한 마음의 고향은

1) Charles Fenton, The Apprenticeship of Ernest Hemingway (New York : Farrar Straus & Young, 1954), P.13.

2) Leicester Hemingway, My Brother, Ernest Hemingway (Fawcett Publication, Inc, 1962), P.185.

오크파크(Oak Park)가 아니라 월룬 레이크라 함이 타당할 것이요, 아프리카의 푸른 언덕에서 헤밍웨이는 그가 좋아하는 지역은 문명의 손길이 가지 않는, 천연적인 모습의 지역이라고 한 것³⁾도 더 나아가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은 마을의 분위기를 벗어나 맑고 깨끗한 호반의 분위기를 찾아 나서려는 하나의 의식이 Journey의 형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헤밍웨이가 갖고 있는 부모님간의 갈등, 마음의 고향을 찾아 나서는 이러한 여정도 대조기법(Contrast)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헤밍웨이의 작품을 읽어보면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 의미를 가진 그 무엇을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고 이러한 것이 대조기법의 기본틀 속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간이 겪는 곤경 속에서도 어떤 새로운 도덕적 규범, 마음의 평화를 회구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그의 최초의 단편집 In Our Time의 경우 그 책명이 영국 국교의 기도서 중에 잘 알려진 구절 “주여 우리들 시대에 평화를 주소서” (Give Peace in Our Time Lord)에서 따온 것을 본다면 그 암시하는 바의 시도를 읽어 볼 수 있다. 그의 최초의 장편집 「해는 또 다시 뜨다.」 (The Sun Also Rise)의 제목은 구약성서의 전도서 4절에서 7절까지에 나오는 구절에서 따온 것인데 땅위에 사는 인생의 허무함을 외치는 전도사의 말이다. 이 소설의 내용도 영혼의 허무와 고뇌,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헤쳐 나올 수 있는 지혜, 평온한 마음의 무한한 갈구를 암시하고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것도 결국 전쟁과 사랑이라는 상반된 세계에서 전개되고 결국 불행한 처지에 어떻게 순응하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주인공 제이크 반즈(Jake Barnes)는 이태리 전선에서 부상을 입고 불행하게도 성기능을 상실한 불구자이지만 자기 혼자만이 구축한 보루를 지키며 고독한 싸움을 펼쳐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온 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 (A Farewell to Arms)의 핵심 내용은 “A Very Short Story” 단편의 주인공 Nick Adams 가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담가병이 오기를 기다리는 장면에서 얻어 온 것이다.

닉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서 리날디를 바라보았다.

「이봐 리날디 너하고 나는 단독 휴전(Separate Peace) 을 한 거야」 리날디는 숨쉬기 거북해 하면서 햇빛 속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우리는 애국자가 아니다.」

전쟁과 평화, 사랑과 증오의 교차 속에 진행되는 작품 「무기여 잘 있거라」는 5부로 나뉘어져 있다. 이 작품의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장면은 제 41장에서 주인공 프레데릭 헨리(Frederic Henry)는 캐더린(Catherine)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전쟁터 어디에서 겪은 통나무 위에 개미가 죽어 가는 사연을 상기하면서 주제를 잘 명시하고 있다.

3) E. Hemingway, Green Hills of Africa (New York : Charles Scriber's Sons, 1953), P. 285

언젠가 나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통나무를 던져 넣었다. 그 통나무는 개미들이 가득했다. 통나무가 타기 시작했을 때 개미들은 우르르 몰려 나왔다. 처음에는 불길의 중심을 향하다가 다음에는 통나무 끝으로 방향을 바꾸어 달려 나왔다. 개미들이 잔뜩 모이자 이내 불길 속에 휩싸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불 쪽으로 기어가더니 또 다시 끝으로 되돌아 와서 뜨겁지 않은 끝에 모여 있다가 결국은 불 속에 떨어지고 말았다. 나는 그때 이것이 세계의 종말이다 자기가 구세주가 될 절호의 기회였다. 통나무를 불에서 꺼내 밖으로 내던져 버리면, 개미는 땅위로 도망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함석 컵의 물을 통장작에다 끼얹어 버렸다. 컵을 비어 위스키를 따라 물로 얹게 할 작정이었다. 타고 있는 통장작에다 한 컵의 물을 끼얹어 보았댔자 고작 개미를 삶아 죽이는 역할 밖에는 되지못했던 것이다.⁴⁾

헤밍웨이의 허무의 사상은 모닥불에 타 죽는 개미떼에 비유하여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활활 타는 모닥불에 개미떼가 엉겨 붙어 있는 통나무를 던졌다. 결사적으로 살아남은 개미떼들도 위스키를 마시는데 물을 얹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함석 컵의 물을 던져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해 버린 것이다. 이는 인생에서 선량한 사람이나 온순한 사람이나 다 구별 없이 죽이고 말며 메시아 더 나아가 기독교의 윤리, 도덕 내지는 가치를 불 속에 태워 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절을 상기하는 것은 결국 이 작품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바, 우주에 존재하는 인간은 통나무 위에서 기어 나오는 개미와 유사하다. (Man in the universe resembles the ants crawling on a log)⁵⁾

프레데릭 헨리는 냉담한 신처럼 자신의 일에 몰두하므로 고통을 겪는 개미에 대해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개미의 죽음을 응시하고만 있는 것이다. 이것은 통나무를 기어오르다 끝내는 불에 타 죽거나 증기에 익어서 죽는 개미의 모습을 상기하여 인간의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은 모든 가치를 조롱할 뿐만 아니다. 또 한편 프레데릭은 인생(Life)을 게임(Game)에 비교하고 죽음이 승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을 구해 줄 수 있는 God이나 기도는 무용지물인데 이것은 마치 프레데릭 헨리가 불에 타 죽는 개미에게 냉담하듯 신은 인간에게 냉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4) E. Hemingway, A Farewell to Arms (Harmondsworth : Penguin Bk, 1969), #41장. P. 252. 이하 이 책에서 인용되는 것은 FTA로 약하고 페이지만 명기함.

5) York Notes : A Farewell to Arms. (Harlow, Essex : Longman Group Ltd.,1981), P. 38. 이하 이 책에서 인용되는 것은 YN로 약하고 페이지만 명기함.

신과 인간(God and Man), 인간과 개미 (Man & Ants) 밤에만 두려운 존재로 부각되는 신과 낮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신 (The God to Fear in the night and the God not to fear in the daytime)등의 관계를 정반(thesis and Antithesis)의 대조 기법 속에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조기법을 구조(Structure)적인 측면에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최초의 장편 「해는 또 다시 뜨다」의 작품 구성을 관찰해 본다면 Book I (# 1 # 7), Book II(# 8 # 18) Book III (#19)로 나뉘어져 있고 이것이 평지(도시)→ 산지 →평지(도시)의 활동무대를 배경으로 하면서 퇴폐와 건강 다시 허무의 상징으로 대비되어 나타난다.

바꾸어 말하면 Book I에서는 파리의 몽파르나스 (Montpamasse)에서 주인공 Jake Barnes와 Brett Ashley등이 노출하는 퇴폐와 방황을 Book II에서는 스페인 부르제트(Burgette)고산지대에서 맛본 새로운 기분 전환과 행복감을 나타내는 건전함을 Book III에서 팜프로나 (Pamplona)와 마드리드 (madrid)에서 맛보는 허무감을 대조적으로 교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저지와 고지의 장면 (setting) 전이로 불안 퇴폐와 건전, 행복과 평화를 대조시키고 다시 팜프로나와 마드리드로 돌아감으로 저지 (평지)에서 궁극적으로 종결되는 허무감의 표현 기법은 절묘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소위 상실된 세대 (Lost Generation)에 쓰여진 「무기여 잘 있거라」의 구조도 이와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무기여 잘 있거라」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그 구성이 제일부(Book I)에서 제이부(Book II)로 나뉘어져 마치 회곡처럼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기실 그 각 분단의 분류가 날씨와 계절, 명암과 연관시켜 허무와 광명, 질서와 무질서를 대비시키고 있다. 아울러 고지대와 저지대를 나타내는 산과 들 (Mountain and Plain), 비와 눈 (Rain and Snow)등의 자연현상이 가져다주는 상징 대비와 더불어 헤밍웨이가 어렸을 때부터 느껴 온 마음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Oak Park와 Walloon Lake로 대비시키듯 이를 가정개념과 비가정개념 (Home Concept and Not Home Concept), 행복과 역경 (Happiness and Adversity), 전쟁과 사랑 (War and Love) 과 대비시켜서 작품의 구조를 엮어 나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대조기법의 표출의 시발점으로서 Arms 라는 단어가 풍기는 이중적 의미도 전쟁이요, 또한 두팔로 끌어안는다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여성상의 대비도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무기여 잘 있거라」에 등장하는 프레데릭 헨리의 연인 캐더린과 헬렌 퍼거슨(Helen Furguson), 반 캠펠(Van Campen) 과 게이지(Gage)의 관계를 볼 때 그가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모친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다. 그가 추구하는 이상형의 여인이 결코 미국 여성들이 아니라는 점. 이상형과 대비하여 그가 싫어하거나 증오하는 여인상에 대한 조사 여부도 아울러 본 논문에선 다루고자 하는 바이다. 이러한 구조상의 대비를 탐색함으로써 좀 더 헤밍웨

이의 작품 이해와 아울러 그의 저변에 깔려진 사상적 깊이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

끝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헤밍웨이가 미국의 대 공황이라든지 스페인의 내란(1936)이라든지 해서 특히 1930년대 미국이 맞이한 붉은 10년대(The Red Decade)를 거쳐 나타난 전환기의 (1936 - 45) 대표작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의 주인공 로버트 죠단이나 성숙기(1945 - 1961)에 쓰여진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 산티아고(Santiago)와 모색과 방황의 시대에 쓰여진 초기 작품의 주인공들의 행동 양식은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주인공들은 단절되어진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정서적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회와의 고립을 취하므로 부정적인 면면을 강하게 부각하고 있는 반면 전환기와 성숙기의 주인공들은 보다 긍정적으로 사회에 참여한다. 산티아고나 로버트 죠단이 갖는 사회와의 고립의 양상과는 다르다. 그러기에 초기 작품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아이로니컬하고 Ambiguous한 태도를 취하고 그로 인해 대조 기법의 폭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논문도 초기 작품 그 중에서도 「무기여 잘 있거라」를 중심으로 헤밍웨이의 대조기법을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한다.

II

헤밍웨이의 의욕적 창작 시대인 제 2기는 모색과 방황 끝에 도달한 자기 세계의 확립이며 이 확립이 사회적 시야의 배제라는 부정적 비련의 토대 위에 일관되어 있고 이 시기에 특색인 것이다. 그의 새로운 변신을 가져온 작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는 전혀 다른 헤밍웨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환기(1936 - 1945)의 대표작인 것이다. 그러나 그는 1930년대의 대공황과 1936년에 일어나 스페인 내란을 계기로 사회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는 이 장편은 초기 장편의 표제를 따올 때의 서문과는 다른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의 제목은 존단의 기도문에서 따온 것이고 존단의 기도문을 작품의 서두에 싣고 있고 그 내용도 작품의 내용과 일치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어느 누구의 죽음은 나를 적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인류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기에 조종이 울릴 때 누가 죽었나를 알아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조종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초기 작품들과 상이하고 대의 명분이나 신성한 목적을 위해 분투하는 로버트 죠단의 희생정신으로 대미를 장식하므로 아이로니컬하지도 애매 모호하지도 않는 분명한 선을 그어 대미를 장식한다. 정부군이 공격을 개시하기전 반정부군 팻쇼 군대 후방에 들어가서 다리 폭파의 임무를 띤 로버트 죠단은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다리를 파괴하여 적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다리 폭과 과정에서 그는 치명적 부상을 입어 도저히 도망칠 가망이 없어진 상황에서 조단은 자기 동료들의 무사한 도피를 위해 자신을 산화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이것을 위해 싸움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훌륭한 고장이다. (The world is a fine place and worth the fighting for)」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지만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 (You can do nothing for yourself but perhaps you can do something for another : FWBT. # 43. P. 429)」는 의지를 실천에 옮긴 것이다. 이는 그가 제목을 따온 존단이 기도문과 일치하는 내용을 제시한 것은 전환기 즉 중기에는 아이로니칼하고 Ambiguous 한 초기의 기법과는 다르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는 헤밍웨이의 대조기법의 특징이 초기의 작품 속에서 더욱 많이 빈출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초기 작품은 퇴폐와 허무 반전 사상, 종교와 사랑이 차단되므로 전통적 가치 상실로 인하여 주인공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봉쇄된 상태로 끝난다. 생물학적 함정에 빠진 캐더린이 제왕절개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순산을 유도하지만 그녀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이를 지켜보던 헨리는 통나무에서 기어 나오는 개미떼들에게 물 컵을 배우는 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소박하고 꾸밈이 없는 세계를 벗어났다가 복귀할 수 없는 악몽을 안고 비틀거릴 때 그 전환점이 죽음일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죽음의 순간이던, 진실의 순간이던 악몽을 떨쳐 버리려는 의식이 절실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부단한 노력은 있지만 그 종국은 절망과 허무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해는 또다시 뜨다」와 「무기여 잘 있거라」의 구성은 희곡 그것도 비극적 희곡의 단면을 지니고 있다. 전자는 3부로 구성되어 허무와 건강이 반복되고 끝내는 다시 허무로 연결 지어 지고 있고, 후자는 5부로 구성되어져 있고 역시 허무와 건강이 반복되어 종국에는 허무의 구조를 이루는 소위 결정론(Determinism)적 주제를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헤밍웨이는 계절, 날씨의 변화라는 자연현상의 상징을 대조기법의 배경으로 연결지어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도표화한다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해는 또다시 뜨다.」

	계절	날씨	배 경	중 요 사 항	비고
Book I	봄	비	파리의 몽빠르나스(도시)	술집 방황, 무질서	허무
Book II	여름	맑음	부르제뜨(산)	냥시와 사냥 투우의 현장	건강
Book III	가을	비	팜프로나, 마드리드(도시)	도시의 술집, 방황, 무질서	허무

「무기여 잘 있거라」

	계 절	날 씨	배 경	중 요 사 항	비 고
Book One	가을	비	전쟁터	전쟁터에서 무료함과 권태, 술과 매춘부, 염전사상, 헨리의 증상	허무
Book Two	여름	쾌청	병원	캐더린과의 참사랑의 결실	건강
Book Three	가을	비, 안개	전쟁터	카포레토의 퇴각, 무질서와 혼란, 단독 강화	허무
Book Four	겨울	눈	몽트릭	마지오레(Maggiore)호반, Swiss탈출	건강
Book Five	봄	비	루잔느, 병원	생물학적 함정, 죽음	허무

상기 도표를 참조해서 각 장을 살펴본다면 우선 가장 현저하게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대조기법의 놀라운 활용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계절의 변화에서 가을과 봄, 여름과 겨울을 철저히 대비시키고 또한 비와 눈, 어둠과 밝음(쾌청)을 교묘하게 짜 맞추어 사건의 현장을 서술함으로써 Book I에서 Book III(해는 또다시 뜨다.) Book One에서 Book Five(무기여 잘 있거라)에 이르기까지 허무와 건강 다시 허무로 연결되는 놀라운 배열과 대조를 눈여겨볼 수 있다. 두 장편 모두 계절의 변화 그 중에서도 봄과 가을을 허무의 표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헤밍웨이가 모색과 방황의 시기에 나타내는 독특한 표현 양식이요 모순의 대비물이라 할 수 있다.

자연 현상 그대로 본다면 봄은 새 생명이 돌아오는 계절이요, 가을은 한해의 수확을 결산하는 계절이다. 그러나 봄은 닥쳐올 여름 - 지루하게 비가 내리는 장마의 계절- 의 문턱에서는 계절이요 가을은 뽕뽕 얼어붙는 겨울의 문턱을 나타내는데 밝은 장면의 전개보다 어둡고 황량한 장면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이에 반해 정작 여름과 겨울은 새희망의 기대가 담겨지는 계절로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모순의 대비처럼 느껴진다. T. S. Eliot 는 그의 대표적 시집 「황무지」에서 비가 구원의 상징으로 모순 대비시키는 수법을 원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반해 헤밍웨이는 「비」라는 자연 상징물을 재난을 나타내는 Image로서 가을과 봄이라는 계절과 접목시킴으로써 인간 내면의 심리적 분위기를 암시하는 간접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본다. 「해는 또다시 뜨다」에서 Book I 과 Book III에서 주인공들이 도시의 술집을 배회할 때 곧잘 비가 내리고 그들이 갖는 심리적 분위기를 허무의 표상으로 서술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무기여 잘 있거라」에서 항상 비가 재난을 알리는 신호로 사용되고 있다.

Book I Chapter I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상황은 악화되었다. 겨울의 문턱에 이르는 즈음 줄곧 비가 내렸고 비와 더불어 콜레라 닳쳤다. (Things went very badly. At the start of the winter came the permanent rain and with the rain came the cholera. FTA. # 1. P. 8)

현실주의자를 자처하는 프레데릭은 불길한 징조 같은 상징적 이미지를 불신한다고 공언하면서 스스로 캐더린 자신이 빗속에서 죽은 환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을 떨쳐 버리기 위한 몸부림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두 연인의 대화 속에서 이를 감지할 수 있다.

“당신은 정말로 비를 두려워하지 않죠?” “ 당신과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요.”
 “왜 비가 무섭지?” “비가 무서운 까닭은 가끔 난 빗속에서 내가 죽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바보 같은 소리.” “ 그리고 가끔 당신이 죽어 있는 것도 보여요.”
 “정말 넌센스야 나는 비가 두렵지 않아 비가 두렵지 않아 오 하느님.”
 그러나 밖은 줄곧 비가 내리고 있었다. (FTA. # 19. P.100)

카포레토 퇴각 당시에도 비가 온다. 퇴각하는 병사들은 비에 흠뻑 젖는다. 그리고 캐더린이 스위스 로잔느 병원에서 순산을 하지 못하고 제왕절개를 하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순간에도 비가 온다. 다음에 그녀가 끝내 죽고 말자 간호원을 몰아낸 뒤 그녀 옆에 있을 때도 비는 계속 내린다. 병원을 뒤로하고 걸을 때 그는 비를 흠뻑 맞는 것이다. (After a while I went out and left the hospital and walked back to the hotel in the rain. FTA. # 4. P. 256).

프레데릭 헨리가 부상 치료를 마치고 전쟁터로 향할 때, 캐더린과 이태리 국경을 넘어 스위스로 탈출하는 밤에도 비가 내린다. 이처럼 비는 불길한 사건을 예언하는 징조로 비를 내리게 한다. 한편 눈이 「킬리만자로의 눈」에서 눈이 죽음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에서 봄에 내리는 눈은 주인공에게 위협을 가중시키고 그 뿐만 아니라 귀머거리 노인(Eli Soldo)의 죽음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기여 잘 있거라」에서는 눈이 비와 대조적 상징으로 쓰여질 때 행복과 평화 순결을 나타내는 징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캐더린과 프레데릭 헨리가 몽퇴르 산장에서 잠시 행복한 순간을 맞을 때 산아는 눈에 덮여 있었다. 이처럼 비는 눈과 대조적인 상징의 기법으로 때로는 쾌청한 맑은 날씨의 대응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는 또한 평지에서 산을 탈취하려는 전투에서나 낙엽 앙상한 나뭇가지들과 함께 보여줌으로

하나의 통합된 상징으로 조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산을 탈취하려는 전투도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비가 온 가을에도 나뭇잎들이 떨어졌으며 나뭇가지는 앙상했고 등지는 빗물로 시커멓게 되었다. (FTA. # 1. P.7)

평지(Plain)와 산(Mountain), 어둠(In the dark)과 밝음(IN the day), 계절의 변화, 가정개념(Home Concept)과 비가정적 개념(Not-Home Concept)등이 대조적인 상징으로 통합되어 작품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여건과 비의 관계는 프레데릭과 캐더린이 겨울 내내 건강에 유익한 찬 공기와 깨끗한 눈에 둘러 쌓여 그들만의 행복을 누리던 고산지대를 뒤로하고 인간적 구원이 있다고 믿는 병원을 찾아 저지대로 내려가면서 날씨는 풀려 봄의 문턱에 오면서 비가 내리고 재앙을 맞이하는 기묘한 서술 기법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평지와 비, 호텔방에서 느끼는 감정 어둠을 기피하는 프레데릭의 태도들이 대조기법의 형식을 빌어 전개되어 있는 것이다. 그 대신 먼 산과 첫눈은 행복 평화 건전 등의 상징물로 사용되었고 이와 더불어 고산의 이미지를 가정개념과 대응해서 작품 구성의 기본 틀로 도입하여 퇴폐 → 건전 → 허무 → 건강 → 허무의 장을 만드는 Setting으로 활용하고 있음은 대단히 주목할 만하다.

프레데릭 헨리가 휴가를 가려고 할 때 신부와 그의 친구 리날다가 권하는 휴가지 - 밝고 건조한 좋은 사냥터 아브루찌(Abruzzi)와 어둡침침하고 매춘부들이 있는 나폴리는 고산지대와 저지대를 대비시키는 좋은 예가 되고 있는 것이다.

“난 당신이 아브루찌로 가 보시는게 좋겠지요. 참 좋은 사냥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마음에 들것이고, 날씨는 차지만 맑고 건조합니다.” (FTA. #2.P.11)

“아니 저 양반 아브루찌 애길 다하네. 어여쁜 색시가 있어야 할걸. 나폴리의 사방 주소를 가르쳐 주지. 젊은 미인들이 있지.(Ibid)”

프레데릭 헨리는 결국 눈이 많이 오고 사냥할 수 있고 밝고 차고 건조한 (Clear, cold and dry) 아브루찌를 휴가지로 정하지 못하고 매춘부들이 많은 문명과 문화의 중심지인 저지대인 도시 밀란(Milan)의 어두운 카페에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와서 아브루찌에 대한 강한 향수와 아쉬움을 포함으로써 대비시키고 있다.

“나는 아브루찌로 가고 싶었는데.(가지 못했군). 그곳은 맑고 찬 건조함이 있고 눈이 있다. 눈 속에는 토끼의 발자국을 찾아 볼 수 있고 좋은 사냥을 할 수 있었는데” (FTA. #3. P.14)

이러한 두개의 상반된 이미지는 가정과 비가정적 개념과 연결 지어진다. 가정 이미지는 고산 지대, 건조하고 차가운 날씨와 연결되어 평화 사랑 품위 건강 행복 선량한 생활 신앙 또는 최소한 신에 대한 의식 등과 관련된 것이다. 한편 비가정적 이미지는 얇은 평지, 비, 안개, 외설 불명에 질병, 고통 신경과민, 전쟁과 죽음, 무신앙등과 관련지어 설명되고 있다.⁶⁾

헤밍웨이는 맑고 건조하고 찬 공기는 질서 있는 곳이라고 그의 단편 “조명이 잘된 장소 : A Clean Well-Lighted Place)”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유일한 것이다. 빛과 어떤 청결함 질서는 그 모든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첨가되는 빛은 어둠과 연결 지어지는 것이요. 「무기여 잘 있거라」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 밤과 낮의 다른 점에 관해서, 그리고 낮이 깨끗하고 냉랭한 것이 아닐진대 차라리 밤이 얼마나 낮보다 나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애썼지만 할 수 없었다. (FTA# 3. P. 15)

이러한 대조기법의 기본틀을 작품 구성에 근간으로 해서 5부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제일부에서 전쟁의 분위기, 전쟁의 인연으로 사랑하게 되는 두 남녀를 소개한다. 이러한 전쟁 분위기로 인해서 처음 두 남녀는 사랑을 유희적인 게임으로 시작하게 만들고 이들의 사랑이 점차 진정한 사랑을 변해 가게 한다. 제일부는 분명 음산한 분위기 절망의 세계요 제 2부는 밀라노에서 감격적인 두 사람의 상봉과 사랑이 이루어지게 함으로 광명 빛의 세계를 제시해 주었고 제 3부에서는 전선의 붕괴로 후퇴하는 프레데릭. 타그리아멘도 강속에 뛰어들어 단독강화를 맺는 암흑의 세계, 제 4부에서는 임신 때문에 간호원을 그만두고 Stresa에 가 있는 캐더린을 만나 우중에 마지오레(Magiore)호수를 횡단하여 스위스 고산지대를 향하는 빛의 세계, 제 5부는 둘만이 갖는 행복했던 순간도 잠시 로잔느 병원으로 옮겨짐으로 저지대에서 맛보는 죽음과 암흑의 세계로 전환되며 대미를 장식한다. 이렇게 함으로 전편이 죽음→삶→죽음→삶의 선율적 반복이라는 대조기법과 함께 봄→여름→가을→만추→겨울이라는 계절의 변화와 대칭시켜 세심하게 설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작품의 구조가 철저히 대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음은 물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까지도 철저히 대비시키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6) Carol Bakera, "Mountain and the Plain" Ernest Hemingway : Critiques of Four Major Novels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62), P51~55(III.Home and Not Home)

III

헤밍웨이는 작품의 구조에서 계절, 날씨의 좋고 나쁜, 분위기, 배경, 저지대와 고지대, 가정 개념과 비가정적 개념은 사건과 일치되어 서술하고 있음은 앞장구조에서 설명한 바이다. 그뿐만 아니라 등장 인물이 누구 나를 막론하고 여러 조건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인물 유형으로 그리고 아울러 그들의 운명까지 어떤 상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필립 영 교수가 시사하듯이 이것은 기술 방법은 펍 수궁이 간다.

좋은 날씨와 나쁜 날씨는 좋은 분위기나 사건과 일치한다. 등장 인물(Characters)이 누구나 다같이 대기, 광선 등의 여러 조건에 대하여 정서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들과 그들의 운명이 어떤 대응(Correspondence)을 한다는 말이다.
(Philip Young, P.92)

등장 인물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조건에 대해 정서적으로 반응을 보이므로 한 인물의 성격에서 대비되는 면을 발견할 수 있다. 「해는 또다시 뜨다.」의 주인공 제이크 반즈는 성 불구자이며 상징적으로 그 시대상의 불모증을 보여준다. 그러나 작품에 나타나는 행동은 그 시대상을 초월하여 어떠한 질서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자아에게 던져진 대기와 광선 등 여러 조건들에 대응함으로써 부정에서 긍정으로, 무질서의 세계에서 질서의 세계를 추구하는 양상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여주인공 브레트 애슈리는 전쟁 중에 애인을 잃고 정신적 공백 상태, 불모의 시대상을 나타내는 인물이지만 그녀가 한때 투우사 로메로(Romero)와의 부자연스런 사랑을 단념하고 제이크 반즈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가진 것은 신이 아니라 일종의 도덕률(It's sort of what we have instead of God)”을 지켜야 한다고 외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개새끼처럼 더러운 여자가 되지 않겠다.”(Deciding not to be a bitch)는 규범을 보이는 것이다.

「무기여 잘 있거라」의 주인공 프레데릭 헨리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는 스스로 자원해서 군에 입대하고 온몸에 큰 부상을 입는다. 프레데릭이 치즈 조각을 먹고 있는데 포탄이 터진다. 그는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중상을 입고도 의식이 있는 한 옆의 부상당한 동료에게 도움을 주는 영웅적 행위로 은메달을 받는다. 그는 다시 전장에 투입되어 악몽의 현장 카포레토 철수를 맞이한다. 그는 아군에 의해 총살당할 위험에 처하자 타그리아멘토 강물에 몸을 던져 기성의 도덕과 규범, 질서를 부정하고 단독강화를 맺으며 오직 개인적인 사랑에 모든 것을 구한다.

전쟁에서 환멸을 느끼고 목가적 은둔 (Idyllic Hibernation)의 의미로서 스위스의 고지에서 로맨

스를 즐긴다. 이상의 행동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질서의 세계를 생각하고 찾아간 전쟁의 현장이 무질서임을 알고 새로운 질서의 현장을 찾아 나서는 인물의 표본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선과 악의 관계가 이처럼 표현되고 비극적 불가피성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존엄성이 헤밍웨이에게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비극적 테마를 이루고 있다. 프레데릭이 자기 부대와 이탈하여도 결코 존엄성을 잃지 않는다. 그의 이탈의 원인은 무자비한 현병들이 어쩔 수 없는 퇴각을 용인하려 하지 않고 낙오병을 총살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탈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프레데릭의 이탈이 정당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현대인간이 지닌 비열성을 보여주므로써 주인공의 존엄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캐더린은 브렛 애쉬리와 마찬가지로 전쟁 중에 애인을 잃고 정신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특히 간호원으로 와서 부상자를 치료하는 중에 헨리와 사랑에 빠진다. 그는 한때의 주어진 행복에 만족하고 자기가 죽은 후에 그가 다른 여자와 사귀기를 권하고 용감하게 죽는다. 이는 마치 투우사가 죽음에 직면함으로써 그의 존엄성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다. 프레데릭과 캐더린은 사랑 그것도 육체적 사랑이 악몽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의식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한 인간이 지닌 규범을 대비시킴으로 헤밍웨이의 주인공이 갖는 규범의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인공을 통해 상호 모순되는 듯한 행동 양식을 대비시켜서 그가 바라는 「맑고 깨끗하고 조영된 곳」을 향하는 자세를 독자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 그가 선택하는 여인상에서도 좋은 대비를 발견하게 된다. 헤밍웨이의 여성관은 어린 10세 전후의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 시대에서부터 싹터 왔던 것이다. 이로 인해 그가 증오하는 여인상과 그가 좋아하는 여인상이 확연히 구별되어 나타난다. 그가 증오하는 여인상은 자아가 강한 미국 여성 프랑시스 매콤머(Francis Macomber)의 아내 마고트(Margot)에서 잘 드러난다. 이 여성은 초기의 단편이요 부모님을 모형으로 그린 "The Doctor and the Pactor's Wife"의 Doctor's wife의 변신이 프란시스 마고트(Francis Margot)라 할 수 있다. 주인공 매콤머는 미모의 아내와 아프리카 탕간니카 평지(Tanganika Plains)로 맹수 사냥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헤밍웨이에게 있어서 사냥에도 규범이 있어 일방적인 게임은 부정이라고 여긴다. 동물 측에도 충분한 공격의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며, 피습의 위험이 조금도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만을 죽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긴다.

헤밍웨이가 투우의 현장에서 가장 소에 가까이 접근하여 창을 던지는 그 순간이 진리의 순간(The Moment of Truth)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범을 지키며 들소 사냥하는데 부상을 입고 반격해 오는 소가 코앞에까지 접근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쏘아 죽인다. 매콤머에게는 진정 진리의 순간을 포착함으로써 그 순간이 가장 짧고 행복한 순간(A Short

Happy Life)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차안에서 이 모양을 지켜보던 아내 마고트는 충을 발사하여 남편을 죽이고 만다. 옛날 겁쟁이의 훌륭한 변신을 지켜보고 더 이상 자기 남편을 자기 지배에 둘 수 없다는 생각과 질투의 감정으로 자기 보호의 최후 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헤밍웨이가 프란시스 매콤머 행동 양식은 자아가 강한 전형적인 극악한 미국 여성으로 인지했기에 그가 가장 중요하는 여인상이요 Doctor's Wife의 연장선상에 있는 인물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초기 장편에 나오는 두 여인은 이들과는 반대되는 타입의 여성으로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무기여 잘 있거라」의 주인공 캐더린은 너무나 가정적(Home Concept)이고 헨리와는 생활 이의는 바라는 것이 없는 전형적 이상형의 여인인 것이다. 캐더린에게는 헨리가 그녀의 전부요, 종교요 신앙인 것이다.

“우리는 행복했다. 잠시 후 방(호텔)은 우리의 가정과 같은 느낌을 가졌다. 병원의 입원실도 가정이었던 것이다.(We felt very happy and in a little time the room felt like our own home. My room in the hospital had been our own home. : FTA. P. 139)”

“당신은 나의 종교예요 당신은 내가 가진 것의 전부예요.(You're my religion, you're all I've got. : FTA. P. 120)”

이러한 캐더린과 같이 완전한 복종과 완전한 헌신의 여인상의 인물은 그의 다른 작품에서도 연결 지어지고 있다. 「해는 또다시 뜨다」의 여주인공 브레트 애슈리,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의 여주인공 마리아(Maria)와 게릴라의 지휘자 필라르(Pilar), 「강건너 숲속으로」여주인공 르나타(Renata)의 인물 유형으로 정립되어 간 것이다. 에드먼드 윌슨(Edmund wilson)이 캐더린과 마리아에 대한 평가는 주목할 만하다.

「무기여 잘 있거라」에서 우리가 두 연인과 관계를 음미해 볼 때 우리는 이상적인 관계(An Idealized Relationship)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⁷⁾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에서 이러한 놀라운 전형은 아메바적인 관계의 스펀지인 여인 마리아임을 알게 된다. (Ibid. P.254)

7) Edmund Wilson, "Hemingway : Gauge of Morale": E. H : The Man and His Work, ed. John Macaffery (Cleveland : the Wald Publishing Co., 1956), P. 242

캐더린과 마찬가지로 파시스트에 의해 겁탈 당하여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있는 여인이지만 로버트 죠단의 사랑의 힘으로 비록 배낭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처지의 동굴이지만 가정의 이미지 (Image of Home)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헤밍웨이에 대한 태도의 대비를 Philip Young 교수는 잘 지적해 주고 있다.

여인들에 대한 주인공의 그 모든 태도는 특이하다. 즉 호전적이거나 감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아버지를 옹호하면서 어머니를 거부함으로 시작된다. 그 이후 헤밍웨이가 끌어낸 인물(여인들) 마콤브의 아내처럼 악독하고 파괴적이거나 캐더린, 마리아, 르나타와 같은 이상적인 인물상이다. (Young, P. 81)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호전적(Warlike)인 인물의 계열은 주로 미국 여성에 두고 있고 감상적이고 순응 복종형(domicile and submissive)의 여인은 이국 여성 - 즉 브레트 애슈리(영국), 캐더린 바크리(영국), 마리아(스페인), 필라르(스페인), 르나타(스페인) - 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여성관을 필립 영 교수가 지적하듯 어머니에 대한 편견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한편은 그의 세번에 걸친 이론 사건과 연관지어져서 설정된 인물 유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사실과 작중 사실의 혼유임을 깨닫게 된다.

이에 반해 남자 주인공들은 대개 남성다움을 간직한 인물이면서도 Violent Man과 Sleepless Man 으로 표현될 수 있는 대조적 상징의 인물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무기여 잘 있거라」의 프레데릭 헨리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의 로버트 죠단은 전자에 속하는 인물 유형으로 설정했다면 「해는 또다시 뜨다」의 제이크 반즈는 후자에 속한다. 파멸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는 인물이 Violent Man이고, 동적인 폭력과 죽음의 세계가 전개된다. 패배와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좌절하는 인간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가치와 윤리, 도덕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이에 비해 Sleepless Man은 죽음의 강박관념, 현세의 무의미 허무의 세계라는 정적인 세계에서 사고하는 인간 유형으로 대조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새로운 삶에 대한 노력이 있어 보이지만 결코 종교에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Man with God 이 아니라 Man without God으로서 애국심이나 결혼, 심지어 캐더린이 헨리에게 건네준 성안토니상(Saint Anthony) 마저도 모두 공허한 것 (Empty Form) 으로 간주하는 인물인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 도덕의 시금석은 순수한 의식(Sensibility) 인 것이라고 R. B. West 교수는 지적하였다.

도덕의 시금석은 순수한 의식 - 그것도 애국심, 종교, 사랑과 같은 공허한 형식에 오도되지

않는 의식이다.⁸⁾ 주인공 인물 유형의 설정에서 갖는 대조적 기법 이외에도 작품 속에 등장하는 많은 군소 등장 인물 (Minor Characters)을 통해서도 서로 대비시키는 경우를 주목해 볼 수 있다.

IV

「무기여 잘 있거라」의 주인공 프레데릭 헨리와 캐더린이 일련의 사건과 함께 갖는 대조적인 행위나 갈등은 앞서 구조와 상징의 이미지를 통해서 밝힌 바와 같다. 그러나 여기에 거치지 않고 많은 군소 등장 인물들(Minor Characters)을 통하여도 자주 반복되어 대비 대거나 대조 기법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In Patters of Parallel and Contract : YN. P.43.)

가장 먼저 주목할 수 있는 인물의 대비는 신부(Priest)와 리날딘인 것이다. 이들은 각자 극단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리날딘은 특히 전쟁 중에 모든 인생의 즐거움은 육체에 의존하는 삶이라고 한다. 그러나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God's Love)에 의존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들은 휴가지를 권할 때 (# 3)나 프레데릭 헨리가 부상을 입고 야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각자의 방문을 통해서 함께 하는 대화를 통해 잘 표현되고 있다.

우선 먼저 리날딘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방문(# 10) 한다. 헨리는 리날딘이 왔을 때 진정 형제애를 느끼고 따스한 숨결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옴을 (We are brothers. I left him breath come toward me. FTA. P.57)을 느끼는 절친한 전우인 것이다. 그런 리날딘은 병실을 방문하면서 술을 가지고 왔고 흥등가의 아가씨 이야기를 넣어 놓고 한 여인 캐더린(Your lovely goddess)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한다.

자신이 겪는 전쟁으로 인한 긴장을 풀기 위해 순수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므로 현실 (Reality)을 대변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는 그 다음날도 소령과 다시 방문하여(# 12) 야전 병원을 떠나 밀라노로 떠날 때 뜨거운 애정 어린 우정을 나누면서 함께 술을 마시는 인물인 것이다. 리날딘과 대응하는 인물로 신부(Priest)가 있다. 병원 방문(# 11)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우울한 감정을 헨리와 장교 식당에서 함께 있지 못한 아쉬움으로 토로하고 하나님의 대한 사랑과 지상낙원 아브루찌에 대한 회상을 일깨워 주고 육체의 유혹을 멀리한 인물이다.

현실(Reality)을 나타내는 리날딘에 비해 염전 사상과 전쟁으로 지친 몸이라지만 이상(Ideal)을 나타내는 인물로 표현한다. 또한 11장에서 신부는 장교(Officers)와 병사(Men)의 대조를 전쟁을

8) Ray. B. west, Jr. "A Farewell to Arms", Ernest Hemingway : Four Critiques of Four Major Novels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62), P. 30

일으키는 무리와 수행하는 무리로 들려주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또다른 대조기법은 앰부런스 운전병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애국자와 무정부주의자로서 엄전 사상에 빠져 있는 무리로 나뉘어진다. 전형적인 애국자(Patriot)는 지노(Gino)인 것이다. 애국심이란 무용지물 또는 공허한 것으로 느끼는 프레데릭에게는 공감을 느낄 수 없지만 이해하는 입장에 선다. 영광, 명예, 용기나 신성이라는 추상적인 단어(Abstract Words)는 전쟁의 현실에서 저속한 것(Obscene)으로 여기지만 지노가 애국자라는 사실, 때때로 우리들과 거리감을 느끼는 말들을 하지만 선량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이해한다. (Gino was a patriot, so he said things that separated us sometimes, but he was also a fine boy and I understood him being a patriot : FTA. # 27. P. 144) 이러한 지노에 대응해서 전쟁터를 벗어나고자 하는 탈장병(The man with hernia)이 탈장대를 때버리는 인물(# 7)을 비롯해서 제 9장에 등장하는 다른 4명의 운전병, 파시니, 마네라, 가부찌 골디니는 전쟁이 그치고 집에 가기를 바라는 인물들과 대비되고 제 27장 퇴각때 프레데릭과 함께 행동한 4명의 운전병도 지노와 대조적인 입장에 선다. 퇴각 때 요리를 잘하고 신앙심이 있는 바톨로메오 아이모(Bartolomeo Aymo)는 겁탈을 두려워하는 순결한 두 여자(Two Young girls)를 태워 준다. 이로써 아이모는 매춘부(Whores)와 대비되는 (Real Virgins in Contract to the Whores. YN. P. 26) 순결한 여인을 보살피 줌으로 나타나는 선량한 인물이고, 소위 사회주의자를 자처하고 두 명의 배반하는 상사(The Two Segregates)를 태워 준 보넬로(Bonello)와 또다른 사회주의자 피아니(Piani)와 대조되어 나타난다. 이 세 사람과의 상관 관계는 상투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으로 선량하고 소박하고 신앙심이 있는 아이모는 죽고 이에 반해 격정적이고 공격적인 보빌로네 탈영을 해서 적에 포로가 되었고, 같은 사회주의자이면서도 단지 결혼을 했다는 이유와 프레데릭만 남기고 탈영하기를 거부한 피아니는 보넬로와 대조를 이루면서 서로 다른 특질을 가진 인간상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적인 특질을 이룬 세 사람은 제 9장에 앰부런스 운전병처럼 애국심이 없고 전쟁을 싫어한다는 점에서 애국자 지노와 대응하는 인물 유형으로 등장한다. (All three, however, like the drivers in the earlier scene, have no patriotism and are disgusted with the war. YN. P. 50)

한편 프레데릭 헨리가 몸에 박힌 강철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6개월 뒤로 미루는 무능한 의사와 즉시 수술을 해 준 유능한 의사 바렌티노(Valentino)도 대조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FTA. # 13) 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고 후자는 술을 마시는 사람 (A Drinking Man)으로 등장한다.

헤밍웨이는 악몽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의식, 액막이로 낚시, 사냥, 음주, 사랑의 행위(Making Love), 투우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행위들은 헤밍웨이가 진리의 순간을 포착하는 행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술을 마시는 사람과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과 대조적인 서술을 함으로써 유능한 의사 바렌티노와 술을 마실 줄 모르는 무능한 세 명의 의사와 대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의 관계를 부연 설명이라도 하듯 에토레 모레티(Ettore Moreti)와 랠프 시몬즈(Ralph Simmons)의 대비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프레데릭 헨리가 스칼라 극장으로부터 뺀친 거리에 변해 있는 조그만 바아 앞에서 부영사와 이 두 사람을 만난다. (FTA. # 19). 에토레는 샌프란시스코 출신 이탈리아계 미국인이고, 랠프 시몬즈는 장래 훌륭한 가수를 꿈꾸는 미국인 가수인 것이다.

23세의 젊은 에토레는 오직 자신의 노래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시몬즈에 대해 노래 실력도 변변치 못하다고 비아냥거리고 자신이 탄 전쟁에서 세운 공로로 탄 2개의 청동훈장과 3개의 은공훈장을 자랑한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중상을 세번 그래서 세 개의 은장 훈장을 가슴에 달고 자랑을 떠벌리고 있다.

정말이야, 이놈이 있으면 굉장하거든. 여보게 이놈을 세 개나 타려면 여간한 수고가 아니야. 병원에 삼개월 동안이나 입원해야 할 만한 부상을 입어야 겨우 이놈 하나야 (FTA. # 9. P. 96)

에토레는 전쟁에서 취한 용감하고 국가를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훈장을 받았고 자신의 애국심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는 술을 하지 못하고 특히 캐더린이 이런 에토레를 몹시 싫어해서 그와 합석해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헨리는 훈장이니 애국심이나 하는 것은 타그리아멘토 강물에 뛰어들고는 모두가 공허한 (Empty Things)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시몬즈는 자신의 주어진 가수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고 언젠가 스칼라 극장에서 노래 부르게 되기만을 바라지만 술을 마실 줄 아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이런 점에서 유능하고 무능한 의사의 대조와 연관시켜 주목해야 할 점이다. 또 다른 대조적인 인물 유형으로 94세의 노인 그레피 백작(Count Greffis # 35)과 마이어즈 (Meyers : # 19)를 들 수 있다.

그레피 백작은 귀족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훌륭한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는 인물이다. 이에 반해 마이어즈는 지난날 한때 감옥 생활을 했고 그러므로 좋지 않은 과거를 거론하고 싶지 않은 인물로 등장한다. 전자는 훌륭한 기술을 보이면서 당구를 치고 있는데 반해서 후자는 부당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얻기 위해 경마(Races)에 빠져 있는 인물이다. 그레피 백작의 역할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종교의 문제를 거론하고 오직 밤에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프레데릭 헨리에게 현재의 사랑이 종교적 감정과 같은 것이라고 일깨워 준다.

“제 종교심은 밤에만 옵니다.”

“그러면 노형도 연애했고 있구려. 이것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물론이지.” 그는 당구대 앞으로 한 걸음 접근해 갔다.

독자는 이 시점에서 헨리가 캐더린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랑을 하나의 유희(Game)로 여겼던 세속적 사랑(Secular Love)과 현재 캐더린과의 관계는 종교심(Love of God)으로 바뀐 관계를 리날디와 신부의 관계와 연결 지어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인간의 종교(Religion of Man)와 하나님에 대한 종교(Religion of God)를 대표하는 리날디와 신부의 관계를 세속적 사랑과 종교심으로 승화된 사랑 즉 Secular Love 와 Love of God으로 표현했고 이를 프레데릭과 캐더린의 사랑과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사랑으로 대비시키는 놀라운 헤밍웨이의 대조기법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고뇌하는 캐더린의 친구 헬렌 퍼거슨(Hellen Fugerson)의 대조적인 행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헬렌 퍼거슨은 스코트랜드 출신 간호원으로 절친한 친구 캐더린과 함께 생활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보았다. 전쟁을 잊고 단독 강화를 맺고는 (Forget the war and made a separate peace. P. 188) 사복을 입고 캐더린을 찾아 스트레사 병원으로 달려온 프레데릭 헨리의 행동에 대해서 갈등을 느낀다.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행위(임신을 시켰다)와 캐더린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심리와의 헤어지지 못하는 갈등을 울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너는 임신한지 몇 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농담으로 알고 자길 속인 남자가 돌아왔다고 해서 좋아서 생글대고만 있구나. 넌 부끄러움도 없고 감정도 없는 인간이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캐더린은 옆으로 가서 퍼거슨에게 팔을 감았다. “난 아무래도 좋아”. 하면 퍼거슨은 훌쩍 훌쩍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서운 일만 같애”. “너희 둘 다 내 참견은 말아요. 난 머리가 이제 뒤죽박죽이야. 제 정신이 아냐. 난 두 분이 행복하기를 빌어요.” (# 34. P. 191)

한편 이처럼 갈등을 빚고 있지만 인간 내면 깊은 곳에는 뜨거운 사랑이 묻어 있어 도움을 주는 퍼거슨과 대비되는 인물 유형으로 밴 캠펀(Van Campen)을 들 수 있다. 그는 프레데릭이

수술을 마치고 그의 병실에서 많은 빈 술병을 발견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함으로 본래 3주 회복기 휴가를 받게 된 것이 취소되고 만다. (# 22) 그녀는 프레데릭이 전쟁에 돌아가지 않기 위해 일부러 황달병을 얻으려고 술을 마시는 것으로 단정하고 음주 보고를 올리고 만다. 줄곧 두 사람의 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겨온 그녀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옮기므로 프레데릭에게 부상이 채 아물기도 전에 전쟁에 복귀해야 할 운명에 처하는 것이다. 22장에서는 이러한 밴 캠펜과 대비하는 인물로 간호원 페이지(Page)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하는 퍼거슨의 대역으로 등장하는 인물로 여겨진다. 이러한 좋아하는 여성과 좋아하지 않는 여성으로 구분 지어 서술하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처럼 어머니에 대한 편견과 그의 실재 세번에 걸친 이혼이 빚어낸 부산물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무기여 잘 있거라」의 군소 등장 인물을 통해 표출하고 있는 대조적인 모습을 도표해서 본다면 아래와 같다.

The Characters in Patterns of Parallel and Contrast

1	"Priest" is the man with God and represents ideal and spirit. <The religion of God>	"Rinaldi" is the man without God and represents reality and flesh. <The religion of man>
2	"Count Greffi" represents an ordinary life with the reputable past and enjoys billiards with skill.	"Meyers" represents an ordinary life with the disreputable past and enjoys races.
3	"Valentino" is a competent doctor who can drink.	"Other doctors" are incompetent doctors who can't drink.
4	"Ettore" is an intensive patriot who is proud of medals.	"Simmons" is only interested in his career as an opera singer.
5	"Two sergeants" are, vulgar and reliable men whom Bothello picked up.	"Two young girls" are sacred virgins whom Aymo picks up.
6	"Helen Fugerson" represents the brotherhood and the conventional morals	"Van Campen" represents hostility toward man and the rigid rules.
7	"Gino" is a patriot.	"Other three ambulance drivers" are anarchists.
8	An Australian "barbers".	A friendly "guards.

V

헤밍웨이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의 소년 시대는 그에게는 작가로서 습작의 시대로 고등학교 문예지를 통해 작품을 발표하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 시대의 특징으로 평가되는 피로를 모르는 활력과 열망, - 그는 만능 운동 선수요 학교 성적도 늘 우수했었다. 그 이면에는 늘 고독의 어두운 그림자가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상반된 세계에서 그는 문학의 길에 정진한 것이다. 정신적인 불행과 정열의 교차 속에서 그는 상대적인 가치 척도 내지는 Ironic하고 Ambiguous 한 가치 속에서 자아를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해 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그의 문학에도 잘 드러난다. 헤밍웨이는 문학은 미국 문명의 우수성, 독자성을 주장한 에머슨의 논리와는 상반된다. 19C 미국의 많은 작가들, 롱펠로우를 비롯한 소위 Harvard Group의 작가들이나 Knickerbocker 작가들이 영국의 문학을 모방 내지는 도입 발전해 간 것에 대해 반기를 들고 사고하는 인간(Man Thinking)을 외치면서 진정한 학자는 독자적인 미국 문학의 터를 닦아야 한다는 것이 에머슨의 사상이다. 이러한 주장은 독자적 문학 이론을 정립하면서 미국의 문학을 선진 영국과 비견할 수 있는 위치까지 끌어올린 상징적 이상주의자(Symbolic Idealists)들인 포(Edgar A. Poe), 멜빌(H. Melville), 호튼(N. Hawthorne)을 배출 할 수 있었고 소위 미국 문학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미국 문예부흥(American Literary Renaissance)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로니칼하게도 헤밍웨이는 미국 문학의 지방성, 안이성을 탈피하고 미국 문학의 비중을 세계적 차원으로 고양시킨 역할은 에머슨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의 독자성 우수성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미국 문명 내지는 서구 문명이 지닌 전통적 가치에 대한 회의, 혐오 반발로 독자적인 문학 세계를 구축하여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다.

헤밍웨이가 특히 종교적 교육적 전통적 가치에 대해서 강한 회의를 품게 된 것은 그 시대적 특징에서 찾기보다 소년 시대에 겪은 가정적 환경, 그가 자란 오크파크라는 고향 마을의 칙칙한 분위기의 소산임이 분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원형(Prototype)이라 할 수 있는 주인공들은 잠을 잘 때 악몽(Nightmare)을 갖게 되고, 악몽에서 깨어나 땀과 공포에 젖어서 깨어나 꿈을 꾸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⁹⁾ 그렇기에 그는 잠을 잘 때는 불을 켜 놓고 잠을 청하는 것이다.

9) Philip Young, *Loser Take Nothing in 20C Interpretation of A Farewell to Arms* ed., Jay Gellen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Inc., 1970), P.29.

“잠시 그것을 보고 있다가 나는 잠이 들어 버렸다. 다만 한번은 식은땀을 흘리고 무엇에 놀라 잠을 깬지만 곧 또다시 꿈을 꾸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러나 먼동이 틀 때까지 한잠도 잠을 이루지 못했고 불을 밝히고 나서야 다시 잠이 들었다. (Once it was really light, I went back to sleep again : FTA # 13. P.72)”

이러한 어둠과 밝음 (Dark and Light)의 상반된 세계 속에서 그는 꾸준히 문학의 길을 터득해야 했기에 소년 시대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작품을 하기 시작한 소위 잃어버린 세대 (Lost Generation) 즉, 방황과 모색의 시대의 그 표현 양식은 아이로니칼하고 암시적인 것이다.

환멸의 세대를 잘 보여주는 헤밍웨이의 제 2기 모색과 방황의 시대 (1917 - 1936)에 출판된 단편집 「우리들 시대」(1925), 「여자 없는 세상」(1927) 과 더불어 헤밍웨이를 진정한 작가의 반열에 서게 한 「해는 또다시 뜨다」와 「무기여 잘 있거라」(1926)의 두 장편들의 제목부터 아이로니칼한 면을 지니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그의 초기 두 단편의 제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들 시대에 평화를 주소서」하는 영국 국교의 기도서에서 따온 제목, 여자 없는 세상 (Men without Women)의 아이로니와 암시는 모색하고 방황하는 시대를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두 장편 중 처음에 나온 「해는 또다시 뜨다」의 제목 (Title)은 태양, 즉 희망의 밝은 빛이 밝아 온다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이 담고 있는 전체적인 작품의 내용이나 등장 인물들이 줄곧 술집에서 술집으로 몰려다니면서 허무와 퇴폐의 소용돌이 속에 헤메고 있는 듯한 현상은 성경 전도서 1장 2절에서 밝히듯 모든 것이 헛되다. (All is vanity)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품은 분명 해가 “뜨다.” (Rise)에 비중을 두기 보다 “지다”(goes down)에 더 많은 무게를 지니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전도서 1장 4절에서는 이에 상반된 말씀으로 덧붙이고 있다. 즉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The earth abides forever)가 지시하는 내용은 영원한 존재로서 고뇌와 갈등, 그 아픔을 견디며 새로운 삶의 지혜를 보여주는 인생 유전의 긍정적 세계를 펼쳐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은 모든 평자들이나 일반 독자들에게 무한한 논의를 제공해 줌으로 아이로니칼하고 Ambiguous 한 면면을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 제이크 반즈는 전쟁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재생 불능의 상처를 안고 밤에는 불면의 고통을 겪으며 그가 사랑하는 브레드 애슬리와 관계를 단절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속하지도 못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방황한다. 그러나 맑고 고운 공기가 가득한 부르제트(Burguette)에서 낚시와 투우를 즐기면서 건강하고 건전한 자아의 세계를 추구하던 모습도 잠시 그는 팜프로나와 마드리드의 도시의 퇴폐 속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원점의 세계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듯이

작품은 긍정론과 부정론을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인생은 들고 돌던 끝내는 ‘공(空)’ 뿐이라는 원점회귀론이 더 타당한 것일지도 모른다. 정(thesis) 과 반(Antithesis) 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합 (Synthesis) 을 추구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의문점을 낳는다. 이처럼 대조기법을 동원해서 아이로니칼하고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헤밍웨이의 문학의 큰 특질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모색과 방황의 시대의 산물 중 일약 그를 세계의 작가로서 널리 알리게 된 「무기여 잘 있거라」의 표제도 비슷한 과정과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이 제목은 George Peele 이라는 시인의 시구에서 따온 것인데 이는 자신이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없음을 슬퍼한 나머지 던져진 내용이다.

맑은 헤밍웨이 제목의 경우가 그러하듯 이 시의 암시는 얼마간 아이로니칼한 것이다. 왜냐하면 필르는 그가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슬퍼하고 있기 때문이다. “As in the case of many of Hemingway’s titles, the allusion to the poem is slightly ironic, for Peele mourned the fact that he could no longer fight.” Philip Young. P. 28.)

주인공 프레데릭 헨리는 이태리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신에 227개의 포탄을 맞고 정신을 잃어 버리는 육체적 (Physical), 정신적(Traumatic) 질곡에 시달렸다. 그 치료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시 전선에 배치되었다. 온갖 전쟁의 어려움을 겪은 후 후퇴하는 대열에 끼이게 된다. 어쩔 수 없는 후퇴 (Retreat) 마저 용납하려 하지 않는 초병들에게 붙들려 총살을 당하기 일보 전에 강속에 뛰어들어 위기를 모면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갖게 되는 단독강화(Seperate Peace)를 선언한다. 사랑하는님과 함께 모진 역경과 어려움을 겪고 난후 탈출에 성공하면서 안식처를 구하지만 하나의 또다른 장벽, -생물학적 함정- 에 빠져서 허무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그는 끝내 사랑하는 이를 조상처럼 높히고 비를 맞으며 병원 문을 나서야 한다.

이처럼 헤밍웨이 초기 작품들의 주인공들이 갖는 사회적 고립은 후기에 나온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의 주인공 로버트 조단,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 산티아고가 갖는 사회적 소외와는 다르다. 「무기여 잘 있거라」의 프레데릭 헨리, 「해는 또다시 뜨다」의 제이크 반즈, 그리고 「우리들의 시대」의 닉 아담스 같은 주인공들은 단절되어진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회와의 고립을 취하지만 작품의 표제를 구하는 과정에서 묘한 아이로니를 던져 주어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작품의 표제가 던져 주는 묘한 아이로니는 헤밍웨이 대조기법의 출발점이고 또한 앞서 지적했던 부모간의 갈등, 오크파크를 벗어나 월튼레이크로 향하는 마음 등 어린 시절에 형성된 의식의 세계가 헤밍웨이 대조기법의 또다른 중요 요인인 것이다. 그가 어린 시절에 맞본 악몽의 순간

순간을 깨는 하나의 의식의 한 방편으로 그의 작품 구조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여정(Journey)의 형태라든지 도덕 규범이나 규율이 하나의 헛된 것(The outward forms : # 32. P.181) 내지는 추상적인 구호(Abstract words : # 27. P. 144)에 불과한 것이고 그는 신성이나 영광스럽다는 당혹감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빗속에 서거나 컷전에 들리지 않는 상황(Sometimes standing in the rain almost out of earshot : # 27. P. 43)을 설정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자기의 의도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서술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작품이 Ironical 하고 Ambiguous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헤밍웨이의 초기 작품 그 중에서도 「무기여 잘 있거라」에는 전체적인 구조가 대조적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¹⁰⁾ 좀 더 나아가 행동의 표현 방식으로 상징물의 사용, 중심인물 자신이 갖는 상반된 감정, 비정적 심리묘사, 등장 인물의 대칭적 등장 등을 통해 놀라운 대조 기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더욱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행동 외면의 묘사를 통해서 불표현의 표현을 가미시키고 있는 것이다. 강물 속에 뛰어들고 군복의 메달을 떼어 냄으로써 인위적인 단독강화(Seperate Peace)를 맺고 자아의 독립된 세계를 추구하지만 절망의 이미지 비를 맞으면서 맞이하는 캐더린의 죽음 - 절대적인 생물학적 함정(Biological Trap) - 을 벗어날 수가 없는 숙명을 체험케 한다. 그것은 개미떼들에게 메시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에 단지 함석으로 된 물컵(A tin cup of glass)을 쏟아 버리는 행동 외면의 표현으로 예술적 정서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선량하고 신앙심 없는 아이모(Aymo)가 맞이하는 죽음이 시사하듯 제5부 41장의 내용을 하나의 불길한 징조의 사건을 예단하는 언급을 제34장에서 하고 있다.

이 세상은 모든 인간을 때려부수고 만다....

아주 선량한 것, 아주 순한 것, 아주 용감한 것을 차별 두지 않고 죽여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 어느 것에 속해 있지 않아도 세상은 죽여 버리는 것은 확실하지만 다만 특히 서둔다고 하는 것이 없을 뿐이다. (FTA. # 34. P. 193)

이처럼 가장 핵심 되는 주제(Dominating theme)를 표현하지만 그는 물컵을 쏟아 붓는 다거나, 생물학적 함정에 빠지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제시할 뿐이다. 아이로니칼하고 이중적인 의미(Ironical and ambiguous)를 갖는 언드스테이트먼트(Understatement), 대조기법의 교묘한 배열 등 헤밍웨이는 자신의 독특한 표현 양식을 그의 문학적 특질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고 할 수 있다.

10) The series of contrasting situations : C. Baker. Four Critiques). P. 53.

References

- Hemingway, Ernest, *The Short Stories of Ernest Hemingwa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 1960.
- _____, *A Farewell to Arms*, Harmondsworth: Penguin Bk, 1969.
- _____, *The Sun Also Rises*, New York: Scribner's, 1962.
- _____, *Death in the Afternoon*, New York: Scribner's, 1952.
- Baker, Carlos, *Hemingway: The Writer as Artist*, New Jersey : Princeton Uni., 1965.
- _____, *Ernest Hemingway : Critiques of Four Major Novels*, New York : Scribner's, 1962.
- _____, ed, *Hemingway and His Critics*, New York : Hills and Wang., 1961.
- Fenton., Charles A., *The Apprenticeship of Ernest Hemingway* : Farrar and Young, 1954.
- Gellens, Jay ed., *The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 of A Farewell to Arms*, Eaglewood Cliffs : Prentice Hall, 1970.
- Hemingway, Leicester, *My Brother*, Ernest Hemingway, New York : Fawcett Pub., 1962.
- Waldhorn, Arthur, *A Reader's Guide to Ernest Hemingway*, New York : Farrar, Str면 풍 Young, 1972.
- Wilson, Edmund, "Hemingway: Gauge of Morale", *Ernest Hemingway: The Man and His Work*, Ed., John Macaffery, Clevereland : Wald l'ub., 1956.
- Weeks, Robert, ed., *Hemingway: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New Jersey: Prentice-Hall, 1962.
- White William ed., *By Line* : Ernest Hemingway, New York : Scribner's, 1967.

Abstract

A Study on Hemingway's Contrast revealed in A Farewell to Arms

Sul, Jun Boo

In this article I will investigate and research Hemingway's craftsmanship by finding out various evidences of contrast in the structural patterns of *A Farewell to Arms*. Hemingway has been regarded as the pioneer in a new type of literature and the founder of the most widely imitated prose. This may be inferred by his surprisingly effective structure through understatement, skilful arrangement in the structure of the novel, ideal style and shrewd omissive method etc. But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Hemingway's symbolic juxtaposition or contrast to evaluate his true technique.

A Farewell to Arms is divided into five Books just like a dramatic tragedy. The relationships among the books establish contrast between love and war. Furthermore the atmosphere of each book is changed from hope to despair according to the change of season and weather. With such a wonderful contrast Hemingway reinforced the theme of the novel and achieved his own territory in American literature.

Book I introduces these two themes- love and war and the major events took place at the proper time which Hemingway set. The sense of doom, disaster and death in this novel are revived in the readers' mind by the implicit connotations of symbolic contrast with the seasonal change. That means that events are closely interwoven with the change of season. So with the seasonal change and contrast we can grasp what Hemingway wanted to convey indirectly.

We can also find out that contrast technique is found in characters and symbol. The most important contrast is developed between Rinaldi and priest, and other minor characters are set in patterns of contrast. First of all Rinaldi and the priest are the pivotal role of the symbolic juxtaposition in characterization. The former relies heavily on the flesh (cafe and whorehouse) and the latter, on God's love (Aburuzzi). So these two parallels offer that the one is the man without God, the other, the man with God. The nurse act either as helpers to the relationship of the lovers or overt enemies. Valentini the competent drinking surgeon is contrasted with the incompetent doctors when Frederic was taken

to hospital. The girls from the brothel is contrasted with the sacred virgins who join the men during the retreat.

With all these mixture of contrast Hemingway presents a continual tension between an ideal and the reality and suggest the dominating theme. His descriptive method does not lie in the direct one but in the indirect one including these subtle hints of contrast. So the total structure of the novel is developed around the views of contrasting situations and symbols. With these contrasts Hemingway achieves his own ironical and ambiguous expression in his novel.